

〈일반논문〉

변함없는 카운터 파트너* : 중국학계의 『劍橋 中華民國史』·『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인식

孫成旭 **

〈목차〉

- I. 들어가며
- II. 『劍橋 中華民國史』에 대한 인식
- III.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에 대한 인식
- IV.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1990년대 중국어 번역본이 발간되어, 중국학계의 큰 주목을 받은 『케임브리지 중화민국사(劍橋 中華民國史)』와 『케임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을 살펴보고, 두 책이 중국에서 갖는 학술적 및 현실적 의미를 고찰했다.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기에 이르는 시기는 장기적으로 굴곡진 중국 ‘現代化’의 과정을 이해하고, 20세기 초 시작되어 미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20년 12월에 개최한 ‘구미 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기획연구’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케임브리지 중국사’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사 분권을 다루며 ‘케임브리지’를 ‘劍橋’라고 표기한 것은 본고에서 다루는 중국학계의 논문은 보다 엄격히 얘기하자면, ‘케임브리지 중국사’ 중국어 번역본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 신문대학교 역사·영상콘텐츠학부 조교수

완성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펼쳐진 지속적인 역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중국공산당 黨史의 정통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학계에서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는 서구학계를 대표하는 중국사 연구서로 여겨지기 때문에, 중국의 이들에 대한 인식은 지난 30년 간 중국이 추구했던 방향과 미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잣대이다.

1990년대 혁명사관과 마르크스주의사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현대화’에 있어 국민정부의 영향과 항일전쟁에 있어서 국민당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 움직임이 있었기에, 두 책이 제시하고 있는 외부의 시각은 중국학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며, 혁명사관의 시각에서 논쟁의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중국학계는 중국의 주체적 역사 발전을 간과하는 ‘충격-반응’ 모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왕조순환론, ‘권력투쟁’론 등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오늘날까지 두 책이 호명되고 소환되는 것은 중국이 여전히 그러한 시각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중국의 특수한 역사발전을 제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는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몽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 주제어

케임브리지 중국사(劍橋 中國史), 중화민국사, 중화인민공화국사, 충격-반응 모델, 왕조순환론

I. 머리말

역사는 하나의 거울로, 과거를 살피어 오늘을 알고, 역사를 배워 현명해 질 수 있다. 역사를 증시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거울삼는 것은 중화민족

5,000여년 문명사의 좋은 전통이다. 當代 중국은 역사적 중국의 연속이자 발전이다. 새로운 시대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며 발전시키고,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인류 발전의 역사 법칙을 더 깊이 파악하고, 역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궁리해 지혜를 얻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연구는 모든 사회과학의 기초다. 오랫동안 당의 領導 하,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인재를 배출하고 풍부한 성과를 거두어,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연구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전통을 계승하며, 중국역사·세계역사·고고학 등의 연구역량을 통합해 연구수준과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역사학 관련 학문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며, 역사경험을 총정리 해 역사법칙을 제시하고 역사의 흐름을 장악하여 중국 특색의 역사학 학문체계·학술체계·담론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길 희망한다.¹⁾

2019년 초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中國歷史研究院²⁾ 출범에 보

-
- 1) “歷史是一面鏡子, 鑒古知今, 學史明智. 重視歷史, 研究歷史, 借鑒歷史是中華民族5000多年文明史的一個優良傳統. 當代中國是歷史中國的延續和發展. 新時代堅持和發展中國特色社會主義, 更加需要系統研究中國歷史和文化, 更加需要深刻把握人類發展歷史規律, 在對歷史的深入思考中汲取智慧, 走向未來. 歷史研究是一切社會科學的基礎. 長期以來, 在黨的領導下, 我國史學界人才輩出, 成果豐碩, 為黨和國家事業發展作出了積極貢獻. 希望我國廣大歷史研究工作者繼承優良傳統, 整合中國歷史, 世界歷史, 考古等方面研究力量, 著力提高研究水平和創新能力, 推動相關歷史學科融合發展, 總結歷史經驗, 揭示歷史規律, 把握歷史趨勢, 加快構建中國特色歷史學學科體系, 學術體系, 話語體系.” 「習近平致中國社會科學院中國歷史研究院成立的賀信」,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1/03/c_1123942672.htm(검색일: 2021.5.30).
- 2) 중국역사연구원은 2019년 1월 3일 중국 정부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역사 관련 기관을 분리시켜 출범시킨 역사연구 기관이다. 산하 연구소로 考古研究所, 古代史研究所, 近代史研究所, 世界歷史研究所, 中國邊疆研究所, 歷史理論研究所가 있다.

낸 축전 중 일부이다. 시 주석은 역사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역사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역사연구원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中國社會科學院 산하에 있던 기존 역사 관련 기관을 재편해 연구역량을 재고하는 한편, 역사대중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역사연구원 산하의 歷史研究雜誌社는 2020년 『歷史評論』이라는 역사 대중잡지를 창간하였다. 歷史研究雜誌社는 중국의 권위 있는 역사 학술저널인 『歷史研究』를 간행하는데, 정부 연구기관의 잡지사가 대중잡지를 창간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歷史評論』의 구성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訪談’(인터뷰), ‘歷史經緯’, ‘思潮平議’, ‘史學論衡’, ‘書評’, ‘文萃’(글모음)·‘網言’(인터넷 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논쟁이 되는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평론 위주의 글을 다룬다. 눈에 띄는 것은 ‘文萃’·‘網言’으로 인터넷에서 주목받는 글을 선별해 게재한다. 기존 잡지에서 보기 힘든 신선한 구성이다. 대중성을 획득한 글을 권위 있는 잡지사가 발간하는 대중잡지로 옮겨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歷史評論』은 이를 통해 대중적 역사 담론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인식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간호에 실린 장하오(張皓)의 「신중국 탄생의 세계사적 의의(新中國誕生的世界歷史意義)」, 양화(楊華)의 「누가 중화문명은 연속성이 없다고 하는가?(誰說中華文明沒有連續性?)」, 리귀창(李國強)의 「일대일로’는 결코 역사상 조공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다(“一帶一路”倡議絕非恢復歷史上的朝貢關係)」, 명칭룡(孟慶龍)의 「침략과 이용: 미국 굴기 중 대중국 정책의 축(侵略和利用:美國崛起中的對華政策之軸)」 등과 같은 글의 제목만 봐도 그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중국역사연구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歷史評論』 창간호에 『劍橋 中國清代前中期史』(*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Ch'ing Dynasty to 1800*)와 『劍橋 中國晚清史』(*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Late Ch'*

ing 1800-1911). 『劍橋 中華民國史』(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Republican China, 1912-1949)에 대한 서평 두 편이 실렸다. '清代 前中期史' 서평은 청제국의 중국 왕조로서의 연속성과 신청사 문제에 관련해 중국학계의 입장을 밝히며, 晚淸史와 中華民國史 서평은 중국의 근대적 전환을 '충격(impact)-반응(response)'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며 서구 중심적 중국사 인식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³⁾

창간호에 『케임브리지 중국사』 서평이 실린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 학계에서 『劍橋 中國清代前中期史』 시리즈는 서구학계를 대표하는 중국사 연구서로 여겨지는 데, 여러 시대 중 서평 대상으로 『劍橋 中國清代前中期史』, 『劍橋 中國晚淸史』, 『劍橋 中華民國史』를 택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학계에서 신청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고⁴⁾, 중국의 제국성 및

3) 馬子木, 「這是什麼樣的“中國中心觀”? ——『劍橋中國清代前中期史』讀後」, 『歷史評論』, 2020-1; 馬建標·徐暢, 「旁觀者未必清楚——評『劍橋中國晚淸史』『劍橋中華民國史』」, 『歷史評論』, 2020-1.

4) 鍾焜, 「北美“新淸史”研究的基石何在?—是多語種史料考辨互證的實證學術, 還是意識形態化的應時之學?(上)」, 『中國邊疆民族研究』 7, 2014; 李治亭, 「“新淸史”: “新帝國主義”史學標本」, 『中國社會科學報』 728, 2015年 4月 20日; 楊念群, 2015, 「詮釋“正統性”才是理解淸朝歷史的關鍵」, 『讀書』 2015-12; 劉文鵬, 「內陸亞洲視野下的“新淸史”研究」, 『歷史研究』, 2016-4; 張志强, 「超越民族主義: “多元一體”的淸代中國—對“新淸史”的回應究」, 『文化縱橫』, 2016-2; 汪榮祖, 「“中國”概念何以成爲問題—就“新淸史”及相關問題與歐立德教授商榷」, 『探索與爭鳴』, 2018-6; 方維規, 「“中國”意識何以生成—勘測“新淸史”的學術地層及其周邊構造」, 『探索與爭鳴』, 2018-6; 鍾焜, 『淸朝史的基本特征再探究: 以對北美“新淸史”觀點的反思爲中心」,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8; 汪榮祖 李磊 殷之光 周展安 黃傑銳 田雷, 「“新淸史”與中國歷史主體性」, 『東方學刊』, 2019-1; 蒼銘·劉星雨, 「從“皇淸職貢圖”看“新淸史”的“淸朝非中國論」,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9-6; 李立民, 「淸代宗學·科學與宗室知識精英的社會認同——兼論新淸史“滿洲認同”的轉向問題」, 『北京社會科學』, 2020-9; 趙軼峰, 「重新思考明淸鼎革——兼談“十七世紀危機”, “大分流”, “新淸史」, 『古代文明』, 2020-5 등.

大一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인 만큼 청대사 파트를 선택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의 관심을 반영한 서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劍橋 中華民國史』는 조금 의아하다. 이 책의 중국어 번역본이 출간된 지 30년이 가까이 지났고, 현재 중국학계에서 과거처럼 비중 있게 인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충격-반응’ 모델도 상당한 비판을 받았으며,⁵⁾ 대안적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歷史評論』이 청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이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서평을 다루었다는 것은 학술적 의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의미가 투영된 것처럼 보인다.

본고는 『歷史評論』에 투영된 그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劍橋 中華民國史』와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Part 1: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 Part 2: Revolutions Within the Chinese Revolution, 1966-1982*;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上卷(革命的中國的興起 1949-1965年), 下卷(中國革命內部的革命 1966-1982年)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까지 확장해 살펴보는 것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화민국 시기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現代化’의 연속선에 존재하며, 20세기 초 시작되어 미완성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펼쳐진 지속적인 역정이었기 때문이다. 中國共產黨史의 문제는 중국의 현실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케임브리지 중국사』가 중국에서 갖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5)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II. 『劍橋 中華民國史』에 대한 인식

1983, 1986년에 나온 『劍橋 中華民國史』 1, 2부⁶⁾는 각각 1991, 1992년 上海人民出版社에서 중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으며, 1994년에는 베이징에 소재한 中國社會科學出版社에서 다른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두 종의 번역본이 나올 정도로 『劍橋 中華民國史』는 중국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어 번역본 출간 이래 5년 동안 중국 학술저널에 발표된 관련 논문은 2편에 불과하다. 1995년 귀더홍(郭德宏)이 발표한 「어떤 別開生面的의 논술: 『劍橋 中華民國史』 하권 항일전쟁 부분을 평하다(一種別開生面的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⁷⁾와 1997년 동귀창(董國強)이 발표한 「『劍橋 中華民國史』의 마오쩌둥 사상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評『劍橋中華民國史』中關於毛澤東思想研究的兩個問題)」⁸⁾이다. 이후 상하이시 中共黨史學會가 1998년 5월 30일 『劍橋 中華民國史』 서평회를 개최하였으며⁹⁾, 이를 계기로 여러 편의 글이 발표됐다. 중국학계의 큰 관심에 비해, 중국어 번역본 출간 5년이 지나서야 『劍橋 中華民國史』를 평하는 글이 본격적으로 발표된 것은 국민당과 공산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 비교적 '민감'할 수 있는 문제가 산재해 중국학

6)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1* (edited by John K. Fairbank and Twitchet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2* (edited by John K. Fairbank and Albert Feuerwerker),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7)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安徽史學』, 1995-3.

8) 董國強, 「評『劍橋中華民國史』中關於毛澤東思想研究的兩個問題」, 『毛澤東思想論壇』, 1997-4.

9) 朱華, 「『劍橋中華民國史』書評會在滬召開」, 『檔案與史學』, 1998-4.

계가 신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일 것이다. 1990년대 혁명사관과 마르크스주의사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고, ‘현대화’에 있어 민국시기 국민정부의 영향과 항일전쟁에 있어서 국민당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존 역사서술의 관성이 존재했다.

〈표 1〉 중국학계의 『劍橋 中華民國史』 관련 논문

저자명	논문명	저널	권호	저자 소속기관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安徽史學	1995-3	中共中央黨史研究室
董國強	評『劍橋中華民國史』中關於毛澤東思想研究的兩個問題	毛澤東思想論壇	1997-4	南京大學歷史系
朱華	『劍橋中華民國史』學術書評會綜述	上海黨史研究	1998-4	中共上海市委黨校
陳雁	大國形象的塑造與中國國際地位的變遷——讀『劍橋中華民國史』	探索與爭鳴	1998-10	復旦大學
郭緒印	國民黨派系鬭爭史之我見——評『劍橋中華民國史』第二部第三章中之『國民黨派系鬭爭』	學術月刊	1999-1	上海師範大學歷史系
張廷友, 唐純良	對『劍橋中華民國史』一則“史料”的訂正	中共黨史研究	1999-5	牡丹江師範學院, 哈爾濱師範大學
史承鈞	『劍橋中華民國史』在文學史料方面的問題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1	上海師範大學人文學院
曾琦珣	試析『劍橋中華民國史』中的新詩觀	華中人文論叢	2012-1	華中師範大學文學院
杜桂劍	『劍橋中華民國史』(下)第四章中若幹史實錯誤	湘潮(下半月)	2015-12	中共中央黨校
陳景控	『劍橋中華民國史』(上卷)三則史事正誤	社會科學論壇	2018-6	河南大學歷史文化學院

馬建標, 徐暢	評『劍橋中國晚清史』 『劍橋中華民國史』	歷史評論	2020-1	復旦大學歷 史學系
------------	-------------------------	------	--------	--------------

『劍橋 中華民國史』에 대한 중국학계 최초의 논평인 귀더홍의 「어떤 별개생면(別開生面)의 논설: 『劍橋 中華民國史』 하권 항일전쟁 부분을 평가하다」는 항일전쟁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중국학자들의 『劍橋 中華民國史』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이 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여러 학자가 참여하면서 일반적인 역사서술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저자마다 각기 다른 주장과 방법론을 제시하며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둘째, 당시 중국학계가 항일전쟁 연구에 있어 戰線, 戰略, 전시 정책 등에 전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한 것과 달리, 『劍橋 中華民國史』는 중국학계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사회문제, 군중심리, 정치 시스템 등 전쟁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셋째, 이 책은 문제의식이 두드러지며, 새로운 관점이 많고 분석과 평론이 비교적 공정하다.¹⁰⁾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귀더홍은 『劍橋 中華民國史』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혁명사관에 따른 역사서술에 익숙한 중국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劍橋 中華民國史』가 일본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시기 국민당의 부정적인 면모를 미화하지 않고 기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귀더홍이 지적하듯, 『劍橋 中華民國史』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인정하고 남경대학살이나 일본이 항일근거지에서 펼쳤던 ‘三光’ 정책을 비판적으로 서술했다. 그는 이 책이 국공 양당의 평가에 있어 중국학계와 일

10)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59~60쪽.

부 다른 관점을 보이지만,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했다고 평가했다. 『劍橋 中華民國史』가 항일전쟁 이후 국민당 정부와 군대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기율이 부패해져 1949년 공산당의 승리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인상적으로 봤다.¹¹⁾ 『劍橋 中華民國史』가 중국어로 번역 출판된 것은 이러한 평가를 전제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귀더홍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기본적인 중화민국사의 흐름을 서술하는 데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劍橋 中華民國史』가 공저이다 보니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둘째, 일부 역사적 사실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해에 혼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그는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원인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획책한 정황이 없으며, 일본은 전면전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기에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 당시 중국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劍橋 中華民國史』의 주장을 비판한다.¹²⁾ 귀더홍은 9.18 사변과 화베이 사변의 연속선에서 루거우차오 ‘사변’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일본이 계획했던 중국 침략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한다. 일본이 지속해서 중국의 판도를 침범하며 압박했는데, 중국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셋째,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공정하지만, 그가 천성적으로 권력을 사랑했으며, 1942년 연안 정풍운동을 통해 자신을 신격화시켰다는 서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마오쩌둥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¹³⁾ 귀더홍이 지적한 문제점은 중

11)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62쪽.

12) 루거우차오 사건 당시 일본은 전쟁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은 『劍橋中華民國史』 下卷의 이리에 아키라(Akira Iriye)가 쓴 10장과 로이드 E. 이스트만(Lloyd E. Eastman, 易勞逸)가 쓴 11장에 나온다. 전자는 비교적 단정적으로, 후자는 유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귀더홍은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했다.

국학계가 『劍橋 中華民國史』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학술적으로 논의 가능한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 준다.

동귀창은 1997년에 발표한 「『劍橋 中華民國史』의 마오쩌둥 사상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劍橋 中華民國史』 2부에 수록된 스투어트 슈람(Stuart R. Schram)이 쓴 「1949년 이전 마오쩌둥 사상」을 맹렬히 비판했다. 슈람은 마오쩌둥을 보수적 민족주의자로 평가했다.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혁명 이론을 중국 전통의 보수적 요소와 마르크스주의의 실용적 요소가 결합한 산물이라고 설명하며,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볼 때 비정통과 이단적 요소가 선명하다고 결론 내린다. 동귀창은 이에 대해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정권,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이론 근거라고 주장하며 비판한다.¹⁴⁾ 동귀창이 볼 때 슈람의 주장은 마오쩌둥의 영도 하 성공한 중국 공산혁명의 정당성을 폄훼하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의 비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가 『劍橋 中華民國史』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슈람만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1998년 5월에 이르러 中共上海市委黨校 주화(朱華)의 주도하에 30여 명의 연구자가 모여 『劍橋 中華民國史』 서평회를 열었다.¹⁵⁾ 저자도 없이 30명이 넘는 평자가 모여 토론했다는 사실은 당시 중국학계가 이 책에 얼마나 주목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후 서평회의 토론을 정리한 주화의 글을 살펴보면, 서평회 참석자들은 『劍橋 中華民國史』의 서술 방식, 연구 방법, 중국학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중국

13)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62~64쪽.

14) 董國強, 「評『劍橋中華民國史』中關於毛澤東思想研究的兩個問題」, 79쪽.

15) 朱華, 「『劍橋中華民國史』書評會在滬召開」, 80쪽.

공산당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예를 들어, 華東師範大學 부교수였던 치웨이핑(齊爲平)은 전술한 동귀람과 같이 스튜어트 슈람에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⁶⁾ 다만 슈람의 연구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는데, 마오쩌둥 사상연구에 있어 그의 사상이 전통문화의 배경 속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며, 마르크스와 레닌 등의 사상과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슈람 등 외국학자의 시각이나 방법론에 동조하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관심을 두는 문제에 중국학계 역시 연구를 진행해 중국의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서평회에 참석했던 천옌(陳雁), 귀취인(郭緒印), 스청쥘(史承鈞) 등 학자가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천옌은 『劍橋 中華民國史』에서 쉽게 간취할 수 있는 ‘충격-반응’ 모델을 비판하였다. 그는 충격에 따른 반응이 중국 현대화의 유일한 동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요 역량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충격-반응’ 모델에 기초한 『劍橋 中華民國史』는 중국근대사 연구에 있어 모종의 충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학자들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 물론 여기서 ‘반응’은 『劍橋 中華民國史』를 일일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 맥락에서의 독자적 연구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劍橋 中華民國史』는 중일관계, 중소관계, 중영관계 등 중국과 열강 관계가 중국의 ‘현대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지만, 천옌은 외부적 요인보다 중국의 自益에 따른 내부적 동력을 강조한다.¹⁸⁾ 이러한 주장은 중국근현대사의 전개에 있어 중국을 주동적 주체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16) 朱華, 『『劍橋中華民國史』學術書評會綜述』, 『上海黨史研究』, 1998-4, 30쪽.

17) 陳雁, 「大國形象的塑造與中國國際地位的變遷——讀『劍橋中華民國史』」, 『探索與爭鳴』, 1998-10, 47쪽.

18) 陳雁, 「大國形象的塑造與中國國際地位的變遷——讀『劍橋中華民國史』」, 48쪽.

국민당 파벌 투쟁 문제에 대해 다룬 귀쉬인은 『劍橋 中華民國史』가 中統과 政學界 파벌 문제를 1927-1937년에 국한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파벌이 경쟁했으며, 이는 그 이전의 갈등에서 기원해 장기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해 장기적인 흐름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⁹⁾ 그리고 구체적인 사료를 제시해 『劍橋 中華民國史』의 사료 오류를 지적하였다.

스청진은 「『劍橋 中華民國史』 문학사료 관련 문제」라는 글에서 『劍橋 中華民國史』는 기초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데 있어 오류가 적지 않고, 사료 오독의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²⁰⁾ 스청진의 지적은 중국학계가 '케임브리지 중국사' 비판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특정 서술이나 관점을 간단히 제시하고, 그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사료를 제시해 실증적으로 비판한다. 2010년대 이후 발표된 정치신(曾琦珣)²¹⁾, 두구이젠(杜桂劍)²²⁾, 천징쉬안(陳景拴)²³⁾ 등도 사료의 오류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劍橋 中華民國史』가 중국에 소개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구미학계 뿐만 아니라 중국학계에서 중화민국사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단순한 오류 지적은 큰 의미가 없다.

19) 郭緒印, 「國民黨派系鬭爭史之我見——評『劍橋中華民國史』第二部第三章中之『國民黨派系鬭爭』」, 『學術月刊』, 1999-1, 88쪽.

20) 史承鈞, 「『劍橋中華民國史』在文學史料方面的問題」,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1.

21) 曾琦珣, 「試析『劍橋中華民國史』中的新詩觀」, 『華中人文論叢』, 2012-1.

22) 杜桂劍, 「『劍橋中華民國史』(下)第四章中若干史實錯誤」, 『湘潮(下半月)』, 2015-12.

23) 陳景拴, 「『劍橋中華民國史』(上卷)三則史事正誤」, 『社會科學論壇』, 2018-6.

III.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에 대한 인식

1987, 1991년 출판된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1, 2부²⁴⁾는 각각 1990, 1992년 上海人民出版社와 社會科學出版社에서 각기 다른 번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海南出版社에서도 1992년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2부를 출판하였다.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를 평하는 논문도 30편 가까이 발표됐다.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현 復旦大學 歷史學系 교수인 동귀창은 1996-1998년 국가사회기금청년 프로젝트(國家社科基金青年項目)로 『케임브리지 중국사』 중 중국공산당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²⁵⁾ 中共中央黨校 교수 진춘밍(金春明)이 이끈 연구팀은 國家哲學社會科學研究 '95 계획(九五規劃)으로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의 연구팀이 구성되어 두 권으로 된 연구서를 분석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의 서술이 중국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2년 유춘(尤存)은 『史學月刊』에 「해외 漢學家 눈에 비친 현대 중국-『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1949-1965』를 읽고(海外漢學家眼中的現代中國——讀『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라는 글을 발표했다.²⁶⁾

24) *The People's Republic, Part 1: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 (edited by Roderick MacFarquhar and Fairban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The People's Republic, Part 2: Revolutions Within the Chinese Revolution, 1966-1982* (edited by MacFarquhar and Fairban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5) <https://baike.baidu.com/item/%E8%91%A3%E5%9B%BD%E5%BC%BA/5450244?fr=aladdin> (검색일 : 2020.12.2.).

26) 尤存, 「海外漢學家眼中的現代中國——讀『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에 대한 비평문은 1997년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이전 발표된 글은 유춘의 글과 1995년 판서우신(範守信)이 발표한 「신중국의 성립으로 보는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의 왕조순환관(從新中國的成立看『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王朝循環觀)」 두 편에 불과하다. 『劍橋 中華民國史』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로 중국학계는 큰 관심을 가졌지만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다.

그런데 유춘은 과감하게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중국어 번역본 출간 직후 비평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가 1949-1965년을 ‘왕조순환론’의 시각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학자들이 ‘신민주주의혁명→사회주의혁명→사회주의 건설’의 틀에서 이해하는 것과 달리 ‘현대화’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이 시기를 설명하는 것에 주목했다.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는 ‘현대화’의 모색 방식을 기준으로 이 시기를 소련모델을 모방하는 시기(1949-1957)와 중국식 모델을 모색하는 시기(1958-1965)로 구분했다. 유춘은 이에 대해 중국의 특수한 내재적 발전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더 나아가 그는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의 사료의 오용과 오독,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것을 일일이 밝히고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진전이 심화되면, 그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점차 국내외 학자로부터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²⁷⁾ 유춘은 직접적으로 당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사 연구를 비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전망은 사실상 지엽적인 문제에 천착하지 말고, 중

『史學月刊』, 1992-2.

27) 尤存, 「海外漢學家眼中的現代中國——讀『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 65쪽.

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의 학술적 의의에 주목하여, 이후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사 연구는 열린 시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유춘의 글이 발표되고 3년 뒤 中共中央黨校 교수인 판서우신(範守信)이 「신중국의 성립으로 보는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의 왕조순환관」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의 제1장은 중국이 서양과 달리 제왕이 중국을 통치하는 전통적인 힘이 존재해 왔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혁명의 결과가 아닌 전통적 왕조의 반복으로 이해한다.²⁸⁾ 이는 중국공산당의 黨史를 정리하고 그 정통성을 세우는 中共中央黨校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기에, 판서우신은 ‘왕조순환관’을 매우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중국공산당 영도하 이뤄낸 반제반봉건의 인민대혁명이자 승리의 결과이며, 중국 역사상 인민이 처음으로 국가의 주인이 되어 새 시대를 연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97년 동귀창 역시 두 편의 글을 발표하여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는 이미 마오쩌둥은 보수적 민족주의자라는 스투어트 슈람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1997년 발표된 두 편의 글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 우선 「50-60년대 중국외교의 몇 가지 문제-『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관점에 대한 평가(關於50-60年代中國外交的幾個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觀點)」에서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가 소련은 강대국이고 중국은 약소국이라는 시각으로 1950년대 중소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1958년 타이완 해협 위기와 1959년 인도-중국 전쟁이 중국 외교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1950-60년대 중국의 외교 정책은 일관되었으며, 평화에

28) 董國強, 「關於50-60年代中國外交的幾個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觀點」, 『當代中國史研究』, 1997-2.

서 호전 기조로 전환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분쟁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권 국가라면 당연한 대응이라고 강변한다.²⁹⁾

또 다른 논문인 「“타국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먼저 멸해야 한다.”-『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평가(“滅人之國必先去其史”——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는 제목에서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한다. 그는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가 현실의 필요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저작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잘못된 관점과 반동 논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가 반문한다.³⁰⁾ 이것은 앞서 살펴본 유춘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목소리였다.

하지만 동귀창의 목소리는 중국학계의 주류가 아니었다. 물론 유춘의 목소리도 주류는 아니었다. 중국학계의 주류 목소리는 그 중간 즈음 위치하는데,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의 장점과 새로운 시각을 인정하면서도, 사료의 오류와 역사적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었다.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에 대한 반박은 『劍橋 中華民國史』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래 표는 중국학계에서 발표된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관련 논저 목록이다. 저자들의 소속을 보면, 대부분 黨史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현실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기를 다룬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의 ‘오류’와 ‘곡해’를 간과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9) 董國強, 「關於50-60年代中國外交的幾個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觀點」, 22쪽.

30) 董國強, 「“滅人之國必先去其史”——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內部文稿』, 1997-3, 30쪽.

〈표 2〉 중국학계의 『劍橋 증화인민국사』 관련 논문 목록

저자명	논문명	저널	권호	저자 소속기관
尤存	海外漢學家眼中的現代中國——讀『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	史學月刊	1992-2	上海華東化工學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範守信	從新中國的成立看『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王朝循環觀	當代中國史研究	1995-6	中共中央黨校
董國強	“滅人之國必先去其史”——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內部文稿	1997-3	南京大學歷史系
董國強	關於50-60年代中國外交的幾個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觀點	當代中國史研究	1997-2	南京大學歷史系
張志明	『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66-1982)』若干史實辨證	當代中國史研究	1998-4	中共中央黨校黨建教研部
朱地	對建國初期知識分子思想改造學習運動的歷史考察——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一個觀點	中共黨史研究	1998-5	中共中央黨史研究室
楊春雨	先例既開,來日方長——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朝鮮戰爭部分	軍事歷史研究	1999-3	미상
潘正祥, 胡羨敏	中蘇友好時期的幾個是非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幾個觀點	重慶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0-2	中國科技大學哲學社會科學部
周敬青	林彪外逃中一個插曲的真相——『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中有關九一三事件的一則史實辨析	黨的文獻	1999-4	中共中央黨校
周敬青	解開林彪是否被挾持之謎——兼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中的有關記述	黨的文獻	2000-4	中共中央黨校
劉傳利, 潘正祥	關於『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中蘇分裂問題正誤	江淮論壇	2000-6	中國科技大學哲社部

李海燕 潘正祥	新中國爲什麼“一邊倒” ——評『劍橋中華人民共 和國史』的有關論點	史學月刊	2000-6	中國科技大 學社工部
朱地	也論“大躍進”的緣起— —評『劍橋中華人民共 和國史』的有關論述	中共黨史研究	2001-1	中共中央黨 史研究室
劉學申	『劍橋中華人民共和國 史1949-1965年』質疑	晉中學院學報	2009-5	安徽師範大 學政法學院

앞서 언급했듯 中共中央黨校 교수 진춘밍(金春明)은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위의 표에서 보이는 주디(朱地), 주징칭(周敬靑), 판정샹(潘正祥), 장즈밍(張志明) 등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외에 쑨후이룽(孫慧榮, 中共中央黨校), 장잉(江英, 中國軍事科學研究院), 왕홍취(王紅續, 中共中央黨校), 천수(陳述, 中共中央黨校), 리자촨(李家泉, 中國社會科學院台灣研究所), 류신(劉新, 中國社會科學院臺灣研究所), 리진샤(李振霞, 中共中央黨校) 등이 참여했다. 참여 연구자의 소속에서 볼 수 있듯 黨史 연구 기관의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종적으로 2001년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평가(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³¹⁾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각 장절의 제문제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동의할 수 없는 논설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책의 목차만 살펴봐도,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상 지위

제1절 ‘왕조순환’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제2절 공산당 승리와 국민당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31)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湖北人民出版社, 2001.

- 제3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의의
- 제2장 중국의 사회경제제도 건설
 - 제1절 사회 개조의 창의적 실험
 - 제2절 제1차 5개년 계획의 몇 가지 문제
 - 제3절 소련 모델과 중국 현실
- 제3장 50년대 몇 차례 사상·정치 운동 평가 및 분석
 - 제1절 건국 초기 지식인 사상개조운동
 - 제2절 50년대 중반 당 간부와 지식인 상호관계의 기초
 - 제3절 지식인과 1957년 整風
 - 제4절 마오쩌둥이 整風에서 反右로 전환을 결정하게 된 원인
 - 제5절 '대약진'의 기원에 관하여
- 제4장 신중국 외교관계에 대한 간략한 분석
 - 제1절 신중국은 왜 '一邊倒' 정책을 폈는가
 - 제2절 신중국은 왜 조선전쟁[한국전쟁]에 참가했는가
 - 제3절 중국은 왜 평화 5공존 원칙을 제시했는가
 - 제4절 왜 진먼(金門)을 포격했는가
 - 제5절 중국과 인도 변경 충돌은 왜 발생했는가
 - 제6절 중소 동맹은 어떻게 깨졌는가
 - 제7절 마오쩌둥이 제시한 새로운 외교이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제8절 신중국 대외관계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제5장 '문화대혁명' 재인식
 - 제1절 '문혁'이 벌어진 원인 재고
 - 제2절 마오쩌둥이 '문혁' 발동은 소위 '정치연맹'이라는 논쟁에 관하여
 - 제3절 '문혁'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 제6장 마오쩌둥 사상의 유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 제1절 마오쩌둥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中國化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가

제2절 마오쩌둥이 추구한 중국 건설의 길은 유토피아를 추구한 것인가

제3절 마오쩌둥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원인 분석

제4절 기타 여러 관점

제7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 건설의 시작

제1절 '계승권을 위한 투쟁'은 1962-1982년 중국 역사 발전의 주제가 아니다

제2절 무시된 위대한 역사성의 전환

제3절 무시된 역사 주제

제8장 '분리된 省 타이완'의 역사 진실

제1절 타이완의 역사적 지위

제2절 일본 점거 시기(1895-1945) 타이완 사회 발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제3절 中外 인사의 '2.28 사건'에 대한 다른 이식

제4절 타이완 경제·정치 발전

제5절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제9장 역사관과 방법론에 관한 여러 문제

제1절 역사관과 방법론의 역사학 연구에 도전

제2절 역사와 논리, 주관과 객관의 일관성 문제

제3절 결출 인물과 군중의 역사상 역할에 대한 평가 문제

제4절 역사관과 방법론 이해의 몇 가지 오해

부록(1)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1966-1982)』의 여러 역사적 사실 변증

부록(2) 린바오(林彪)는 협박당했다는 미스터리를 풀다 —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중 '9.13' 사건의 역사적 사실 분석과 판별

우선 한국전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최근 중국이 '抗美援朝'를 강조하고 있고,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제4장 2절 '신중국은 왜 조선전쟁[한국전쟁]에 참가했는가'에서 본서는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중국의 참전 원인을 기술하고 있다고 평했다. 마오쩌둥은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중국의 전쟁을 선동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설명에 동조한다. 하지만 한국전쟁 전반 서술에 있어 서방의 평론가들을 인용해 중국인민해방군이 전쟁 말기에 이르러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피폐해졌고, 어떤 때는 군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게다가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는 이 전쟁을 ‘항미원조’로 인한 중국의 애국주의 고조라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³²⁾

이 부분을 기술한 장잉(江英)³³⁾은 ‘항미원조’를 승리로 규정하며, 역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우선 ‘抗美援朝, 保家爲國’의 목적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했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안정시켰으며, 중국 대륙의 안전을 지키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했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미국에 엄중한 교훈을 주었고, 미국의 침략 기세를 꺾어 사람들이 국제 패권주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중국의 국제 지위를 제고시키고, 아시아와 국제 사안에 대해 중요한 지위를 확보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민의 정치적 각성을 가져와 애국주의를 고조시켜 중국의 경제 회복과 발전을 촉진했다고 평가한다.³⁴⁾ 이는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이자 평가이며, 최근에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 특정 내용이 호출되고 강조되지만, 한국전쟁을 포함해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평가』에 제시된 시각과 설명이 대부분 현재까지 견지되고 있다.

32)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269~270쪽.

33) 江英이 기술했다고 책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江英의 박사학위 논문인 「五十年代黨的國家安全戰略研究」(中共中央黨校, 1999)의 일부 내용이다.

34)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284~287쪽.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실적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앞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의 핵심은 제9장 ‘역사관과 방법론에 관한 여러 문제’에 집약되어 있으며, 그 핵심은 제1절 ‘역사관과 방법론의 역사학 연구에 도전’이다. 이 절에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은 중국의 지도사상이며, 이는 수많은 중국 지식인이 인정하는 세계관이자 방법론의 지도원칙이라고 밝히면서, 외국학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 역사관과 방법론을 강요할 수 없으며, 실용주의 역사관과 방법론을 신봉하는 외국학자들도 중국에 실용주의를 신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강요하는 것은 무익하며 해만 있을 뿐이며, 이견이 존재하기에 교류와 논쟁이 필요하고, 학술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밝히고 있다.³⁵⁾ 이데올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로 대표되는 서양학계와 ‘과학적 역사관과 방법론’을 통해 학술교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과학적 역사관과 방법론에 있어 다음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1) 과학적 역사관과 방법론은 역사학 종사자가 역사상 진실과 역사 본연의 모습을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2) 과학적 역사관과 방법론은 객관적인 관찰과 역사 서술을 요구한다. (3) 과학적 역사관과 방법론은 발전적 변화의 시각으로 관찰과 역사 서술을 요구한다. (4) 과학적 역사관과 방법론은 충분히 인지하여 역사의 복잡성을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5) 과학적 역사관과 방법론은 역사학 종사자가 엄격하게 역사 발전 변화의 원인을 탐구할 것을 요구한다.³⁶⁾

학술교류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역사관과 방법론은 당위적 제안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에 구

35)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537~538쪽.

36)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540~546쪽.

사된 언설을 제시한다. 서로 다른 역사관과 방법론을 구사하더라도, 그것은 근대 학문으로서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제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역사 현상을 단순화시켜 '땀뿔'하는 것을 차단하고, 발전론적 역사 이해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왕조순환론, '권력투쟁'론, '계파투쟁'론, 사회구조론을 비판한다. 왕조순환론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왕조순환'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 혁명의 성격과 지도자의 공적을 곡해하는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인민이 주체가 되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통치를 단절시켰다고 반박한다.³⁷⁾ '권력투쟁'론은 신중국을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국가로 묘사하고, 중국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을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권력 투쟁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권력투쟁'론은 복잡다단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지도층 내 권력투쟁의 결과로 수렴시켜 일면적인 역사상을 만들어 내며, 실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권력투쟁'론은 비과학적이며 형이상학적 역사관이라고 비판한다.³⁸⁾ '계파투쟁'론은 '권력투쟁'론의 연속선에 있다.³⁹⁾ 사회구조론은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통적 사회질서와 정치관이 뿌리박힌 기초 위에 新中國이 만들어져 현대화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평가』는 이러한 설명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의 발전을 현대화의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지만, 만약 신중국의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근대 중국의 “天不變，道亦不變” 관념과 같이 '중국특색'의 형이상학적 관점에 정제된 시각이라

37)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562~563쪽.

38)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563~565쪽.

39)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565쪽.

고 비판했다.⁴⁰⁾

IV. 나가며

지금까지 『劍橋 中華民國史』와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두 책의 중국어 번역본 출간 이후, 많은 사료가 공개되었고 혁명사관 일변도의 역사서술을 탈피한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었으며, 현재 중국학계는 다각적으로 20세기 중국사를 연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국 ‘本土’ 학자들이 타이완 학자와 함께 작업하여 『兩岸 新編 中國近代史』 晚清卷·民國卷을 출간했을 정도로 역사서술에 있어 상당히 유연해졌다.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지탱하는 혁명사관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념적 대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0년대 나온 『劍橋 中華民國史』와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의 관점과 서술에 대한 강한 비판은 2000년대 들어 거의 사라졌다. 이후 나온 글들은 지엽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 두 눈저는 연구사적 의의가 크지만, 중국 내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저작인 만큼 오류도 적지 않아 현재 학술적 효용은 크지 않다.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에서 인용되는 경우도 드물다.

지난 30년 중국학계의 중국근현대사 연구는 『劍橋 中華民國史』와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 중 현재 중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타자의 시각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혁명사관 일변도의 역사서술을 탈피하고, ‘현대화’의 시각에서 중국근현대사를 증화민족의

40)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567~568쪽.

부흥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으로 바라보며 중국의 특수한 역사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중국학계가 적극적으로 근현대 관련 '通史'를 내놓은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⁴¹⁾ 하지만 지금 중국의 길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일대일로 이후 서구의 중국의 굴기에 대한 외부의 경계는 더욱 커졌고, 지난 몇 년간 미중전략경쟁의 가속화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歷史評論』이 '케임브리지 중국사'를 다시 환기시킨 것은, 현재 서구가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충격과 반응 모델의 틀에서 전근대 중국적인 것을 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현대화'는 서구의 충격으로 추동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전제왕권의 순환으로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그것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劍橋 中華民國史』와 『劍橋 中華人民共和國史』는 중국어본이 소개된 이래 중국학계의 변함없는 카운터 파트너로 중국의 역사연구가 당면한 현실적 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2021.07.04. 투고 / 2021.07.22. 심사완료 / 2021.07.23. 게재확정)

41) 張海鵬 主編, 『中國近代通史』(全十卷), 江蘇人民出版社, 2009; 張憲文·張玉法 主編, 『中華民國專題史』(全十八卷), 南京大學出版社, 2015; 劉國新 主編, 『中華人民共和國歷史長編』(全九卷), 天津人民出版社, 2010; 當代中國研究所, 『中華人民共和國史稿』(全五卷), 人民出版社, 2012; 鄭謙·龐松 主編, 『中華人民共和國通史』(全七卷), 廣東人民出版社, 2019.

[Abstract]

**Forever Counterbalance: Chinese Academia's Views
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 The People's Republic, Part I and II**

Son, Sungwook

This study examines views of the 1990 Chinese translations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Part I* an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Part II*, and their subsequent attention by the Chinese academia. While these translations have been in existence for many years, they continue to be heavily referenced in China and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academic and contemporary meaning. The period from the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until the first half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a critical period for understanding the slow and nonlinear process of China's modernization. This period is also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journey of the unfinished revolution that bega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se connect as well to the legitimacy issues of the Communist Party's history. In Chinese academic circles, the Cambridge Chinese History series is regarded as representing the views of the Western academia, making Chinese perception of the books as a good gauge of China's direction over the past 30 years,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

In the 1990s, an objective re-evaluation of the influence of the cen-

tral government on modernization, as well as its role in the war against Japan, took place based on the revolutionary and Marxist ideology. The perspective provided by the two books was a fresh stimulation for the Chinese academia, which was considered positively even though it was controversial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evolutionary ideology. However, the “impact-response” model that runs throughout China’s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dynastic cycle theory that undermines the legitimac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re strongly criticized, and this issue continues unresolved to this day. The fact that the two Cambridge books are still referenced proves that this issue has never been resolved, and provide evidence for the relentless efforts by the Chinese scholars to present the special historical development of China to the world. This issue in particular must be resolved in order to realize the revival of the China as a nation and for its people to live out the Chinese dream.

□ Keyword

Cambridge History of China, History of the Republic of China, Histor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Response to the West, Dynastic Cycle Theory

[참고문헌]

1. 저서

- 金春明 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湖北人民出版社, 2001.
- 張海鵬 主編, 『中國近代通史』(全十卷), 江蘇人民出版社, 2009.
- 張憲文·張玉法 主編, 『中華民國專題史』(全十八卷), 南京大學出版社, 2015.
- 劉國新 主編, 『中華人民共和國歷史長編』(全九卷), 天津人民出版社, 2010.
- 當代中國研究所, 『中華人民共和國史稿』(全五卷), 人民出版社, 2012.
- 鄭謙·龐松 主編, 『中華人民共和國通史』(全七卷), 廣東人民出版社, 2019.
- Roderick MacFarquhar and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Part 1: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Roderick MacFarquhar and John K. Fairbank,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The People's Republic, Part 2: Revolutions Within the Chinese Revolution, 1966-198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 논문

- 馬子木, 「這是什麼樣的“中國中心觀”? ——『劍橋中國清代前中期史』讀後」, 『歷史評論』, 2020-1.
- 馬建標·徐暢, 「旁觀者未必清楚——評『劍橋中國晚清史』『劍橋中華民國史』」, 『歷史評論』, 2020-1.

-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安徽史學』, 1995-3.
- 董國強, 「評『劍橋中華民國史』中關於毛澤東思想研究的兩個問題」, 『毛澤東思想論壇』, 1997-4.
- 董國強, 「關於50-60年代中國外交的幾個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觀點」, 『當代中國史研究』, 1997-2.
- 董國強, 「“滅人之國必先去其史”——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內部文稿』, 1997-3.
- 朱華, 「『劍橋中華民國史』書評會在滬召開」, 『檔案與史學』, 1998-4.
- 朱華, 「『劍橋中華民國史』學術書評會綜述」, 『上海黨史研究』, 1998-4.
- 陳雁, 「大國形象的塑造與中國國際地位的變遷——讀『劍橋中華民國史』」, 『探索與爭鳴』, 1998-10.
- 郭緒印, 「國民黨派系鬭爭史之我見——評『劍橋中華民國史』第二部第三章中之『國民黨派系鬭爭』」, 『學術月刊』, 1999-1.
- 史承鈞, 「『劍橋中華民國史』在文學史料方面的問題」,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1.
- 杜桂劍, 「『劍橋中華民國史』(下)第四章中若干史實錯誤」, 『湘潮(下半月)』, 2015-12.
- 曾琦珣, 「試析『劍橋中華民國史』中的新詩觀」, 『華中人文論叢』, 2012-1.
- 陳景控, 「『劍橋中華民國史』(上卷)三則史事正誤」, 『社會科學論壇』, 2018-6.
- 尤存, 「海外漢學家眼中的現代中國——讀『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 『史學月刊』, 1992-2.
- 江英, 「五十年代黨的國家安全戰略研究」, 中共中央黨校 박사학위논문, 1999.